

# 시각디자인에 있어서의 에코디자인 및 그린 디자인의 동향 -Triennial exhibition of the eco poster 4th BLOCK, "Ekoplagat Triennial in Zilina"를 중심으로

홍동식 (부경대학교 디자인학부)

## 차 례

1. 연구 목적
2. 그린디자인(Green Design)
3. 에코디자인(ECO - DESIGN)
4. 환경과 시각디자인
  - 4-1. 4th Block
  - 4-2. Ekoplagat
5. 결론

## 1. 연구 목적

산업혁명 이후의 고도의 성장과 인구의 증가는 인간의 소비를 증가시켰으며 그로 인해 자연적 소득을 초과하였다. 이는 성장의 한계에 따른 지속성의 위기일 뿐 아니라 물질중심, 경제 중심의 가치관에 의한 인간성의 황폐화, 기계화, 공동체의 붕괴 등 사회체제와 문명 자체가 근본적인 위기에 처해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같은 위기에 대한 대안이란 더 이상 생명의 근원인 자연을 파괴하고 거스르는 것이 아닌, 생태순환 시스템의 회복을 통한 자연 생태계와 조화되는 문명양식, 곧 생태문명과 그 사회뿐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인식하고 있듯이 현재 지구의 환경오염은 극도로 위급한 상황에 처해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 세계는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 또한 여러 방면에서 시도되고 있다. 이러한 시도 중의 하나로 에코 디자인이 있다. 우리는 이러한 환경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을 디자인이 어떻게 풀어나가고 있는지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인간의 욕망은 현대에 이르러 대량생산, 대량소비, 대량 폐기하는 문화를 만들어 지구자원을 낭비하고 자연 생태계를 파괴하는 위기를 초래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오늘날 우리의 환경이 이러한 상태로 지속된다면 하나밖에 없는 아름다운 지구 생태환경을 후세에 물려 줄 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인

류 멸망으로 이어질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은 오늘날 시각 있는 모든 사람들의 공동된 인식이다.

오늘날 시장지향적인 디자인 개념과 치열한 국제 디자인 경쟁 때문에 디자인은 물질 재료와 지구자원을 지나치게 남용하는 분야로 비판받고 있다. 만약 이러한 시장지향적인 디자인 실체가 지속된다면 미래사회의 인류환경은 디자인 개발에 있어서 심각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전제는 그전부터 그린디자인(Green Design) 운동으로부터 제기되었던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디자인 연구는 조그마한 일상적인 물건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에코디자인(Eco-Design) 의식으로 접근하지 않을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이에 그래픽디자이너로서의 지구환경을 위한 활동과 이에 따른 실제 캠페인 활동에 관하여 연구해 보고자 한다.

## 2. 그린 디자인(Green Design)

전 세계는 환경문제에 관한 관심이 높아져 현재 각 나라에서도 각종 환경운동으로 환경보호에 참여하고 있다. 현대의 문명과 밀착 되어있는 디자인 역시 산업혁명 이후 디자이너들의 무분별한 자원 낭비 등으로 인해 오늘날 대두되고 있는 환경오염, 오존층파괴, 천연자원 고갈 등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디자이너는 사회적, 도덕적, 윤리적인 책임감이 크다. 그런 문제를

인식하고 최소화 하고 개선하기 위해 많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그린디자인이다.

자연을 구성하는 모든 생명체들은 환경변화에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진화한다. 이는 인간도 예외일 수 없으며 디자인 영역에서도 자연과 조화를 꾀하는 환경 친화적 그린디자인을 탄생 시켰다. 그린디자인(Green Design)이란 환경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에서 제품이나 그 외의 서비스를 디자인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은 1980년대에 이르러 전 세계의 주목을 끌며 소비자의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의식으로 증대되어 환경문제가 그린이라는 용어와 더불어 정치와 경제적 핵심 키워드로 떠오르게 되었다. 최근 그린디자인의 방향이 '생태적으로 균형된 방법'이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제품의 생산, 유통, 소비, 재활용, 폐기 등 광의의 개념에서 재료와 생산방법의 평가를 통해 디자인 문제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적극 반영하는 보다 구체적이면서 확대된 개념으로 변화 되었다.

1992년 각국의 정상들이 지구의 환경보존과 보호 그리고 개발에 관해 경제성장과 발전계획에 환경을 고려한 기술을 이용하는 것을 추구하자는 '리우선언'을 하였다. 그 후 생태계 보호와 자연에 대한 관심은 디자인 전반에 걸쳐 하나의 조류를 형성하였는데 그 것이 바로 '그린디자인'이다. 다시 말하면 환경 친화적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린디자인은 아래와 같이 7가지 디자인으로 분류할 수 있다.

- 1) 분해를 위한 디자인
- 2) 재활용을 위한 디자인
- 3) 재사용을 위한 디자인
- 4) 생산성 중심의 디자인
- 5) 제품 수명 연장을 위한 디자인
- 6) 소재의 순수성을 높이는 디자인
- 7) 다품종 소량 주문생산에 의한 디자인

### 3. 에코디자인(ECO - DESIGN)

에코디자인(ECO - DESIGN)이란 원료나 에너지 소모를 최소화하는 제품이나 재활용과 분해가 용이하도록 친환경적으로 제품을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두께를 최적화함으로써 자원사용량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킨 치약튜브나 세탁효율을 35.5% 향상시키면서 물 사

용량과 전력 소비량을 이전 모델에 비해 각각 20%, 30% 이상 감소시킨 세탁기 등이 에코디자인을 적용한 제품들이라 할 수 있다.

- 1) Ecology + Design] : 자연과 환경을 고려한 디자인
- 2) 현재까지의 디자인에서 존재하는 아름다움의 개념과는 다르게 「인간의 건강」과 「환경의 건강」을 동시에 구현
- 3) 상품의 소비과정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감하고 공해와 폐기물의 배출을 최소화하여 사용상의 안전성 최대화

### 4. 환경과 시각디자인

오늘날의 모든 디자인 영역들은 그 대상물이 유형적인 것이든 무형적인 것이든, 제품이든, 시스템이든, 생태학적으로 건강하고 유기적 전체에 통합되는 인공 환경의 구축을 궁극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

그것은 유기론적 견해에 기초하여 자연환경 -인간-구축환경의 '전일성(全性)'을 인식하는 것과, 인간과 환경간의 올바른 '관계(關係)'를 설정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만일 우리가 생태학적 사고와 삶의 방식으로 전환하지 못하고, 소비와 생산의 가장 기초적인방식을 바꾸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미래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모두는 이제 생태적 문제를 더 이상 유보할 수도 없고, 인간 환경의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양자택일의 기로에 서있는 셈이다. 생태환경의 균형(均衡)은 지구상의 모든 인간들의 삶에 가장 기초적인 토대를 제공한다. 즉, 생태적 균형 없이는 삶도 문화도 존재할 수 없고 본 '공간디자인 16강'이 담고 있는 모든 주제에 관한 논의 자체가 무의미해지기 때문이다.

디자인은 도구, 제품, 건축, 도시 등 모든 인공물들을 발전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고, 이러한 모든 활동은 생태계에 매우 직접적이고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생태계에 대한 디자인의 태도는 자연과의 '공생(共生)'과 '상생(相生)'이라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통일되어야 하며, 그와 더불어 디자인이 문화적 필요성과 생태성 사이에 적절한 다리를 놓아주어야 한다.

어떤 세분화 된 디자인 영역에서 일하든지 간에, 모든 디자이너들은 자신의 작업을 21세기의 새로운 환경사상

위에서 진행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중 상당수의 디자이너는 생태학적 디자인(Eco-design) 전문가가 될 필요가 있다.

21세기에는 그러한 디자인 인력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크게 증대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디자인 교육, 디자인 개발, 디자인 정책도 반드시 생태적 과정, 방법, 수단, 나아가 생태학적 평가를 전제해야 한다. 특히 디자인교육은 과학적방법과 더불어 생물학이나 인류학, 문화지리학, 행동 심리학 등의 분야에 대한 연구가 포함되어야 하며, 인간 사회의 생태와 철학, 윤리학 등이 디자인 훈련에 기초 학문이 되어야 한다.

환경 친화란 주변의 계와 그에 속해 있는 주체가 상호관계 속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방향으로 화합됨을 뜻한다. 그것은 환경과 인간 활동 간의 조화를 모색함으로써 지속성을 보장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유도하는 공간조직과 생활양식을 실현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환경 친화적 디자인(Environmentally Friendly Design)의 개념은 보전과 창조의 통합 개념으로 도구, 제품, 건축, 도시 등을 디자인함에 있어서 지속가능한 설계(Sustainable Design)가 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속가능한 개발이란 인간 문명이 자연계의 구성요소라는 인식 하에, 인류사회가 지속가능하려면 자연이 먼저 보존되고 지속되어야 한다는 이념에서 비롯되었다. 지속가능한 설계의 개념에서는 미래의 기술은 생물 지역적 패턴과 규모 내에서 기능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즉 생물학적 다양성과 환경적 통합성을 유지하고 대기, 물, 토양의 건강에 기여하며, 인간의 이용에 의한 영향을 감소시키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환경 친화적 디자인은 생태학적·디자인(Ecological Design), 그린 디자인(Green Design)등의 개념과 맥락을 같이 하면서, 자연의 속성과 인간의 본성에 닿은 자연친화적이며 인간친화적인 디자인을 포괄한다. 그리고 그것은 자연에 새로운 질서를 부여하기보다는 자연과의 '평형(平衡)'을 중시함으로써, 자연의 순환 원리를 디자인에 적용하고 자연의 물성을 통해 인간에게 쾌적하고 자연에 합일되는 환경을 제공하는 활동으로 정의될 수 있다.

#### 4.1 "4th Block"

제품디자인뿐만 아니라 그래픽디자인에서도 환경에

관한 세계적인 디자인동향이 활발하게 움직여지고 있다. ICOGRADA(세계그래픽디자인협회)의 후원을 받으며 세계적인 디자인전으로 발전하며 우크라이나에서 체르노빌에서 개최되는 "4th Block"과 슬로바키아에서 3년마다 개최하는 "Ekoplagat Triennial in Zilina"가 대표적인 환경 디자인 활동으로 볼 수 있다.

Triennial exhibition of the eco poster « 4th BLOCK »은 20년전 1986년 4월 26일 우크라이나의 키예프 남쪽 130 km에 있는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 제4호 원자로에서 방사능이 누출되었던 세계 최대의 참사를 추모하기 위한 환경 예술제이다.

원자력 사고는 수차례에 걸친 수증기·수소·화학 폭발을 수반하였다. 그 결과 2명의 작업원이 즉사하고, 원자로 건물 위쪽이 무너졌으며, 크레인이 떨어져서 노심(爐心)을 파괴하였다. 발생한 화재의 소화 작업에 나선 종업원·소방원의 대부분이 심각한 방사선 상해(傷害)를 입었으며, 7월 말까지 29명이 사망하고, 원자로 주변 30km 이내에 사는 주민 9만 2000명은 모두 강제 이주되었다. 그 뒤에도 6년간 발전소 해체작업에 동원된 노동자 5,722명과 이 지역에서 소개된 민간인 2,510명이 사망하였고, 43만 명이 암, 기형아 출산 등 각종 후유증을 앓고 있다. 사고로 방출된 방사능의 총량은, 초기에 방출된 휘발성의 희(稀)가스류(類)를 제외하고도 5천만 Ci 정도로 추정되므로 총 1억 Ci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재앙에 따른 환경의 파괴를 막고, 추모하며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한 디자인 활동이다.



▶▶ 그림 1. 4th Block 공식 Poster



▶▶ 그림 2. Vitalii Stavitskii 우크라이나

아래는 "4th Block"의 원문 요약이다.

Now the Chernobyl atomic power station is completely closed. The destroyed 4th block is

covered by a concrete sarcophagus. But danger to an environment and the problems connected to protection of atomic power station and protection of people, injured with Chernobyl tragedy, have remained. Ways of the decision of these problems till now are not found. And it already is a politics. Authorities try to forget, break off, to not notice them.

But we remain, all of us are still alive, we try to concentrate and understand global experience of art judgement of problems of ecology, problems of harmonious mutual relation of the person and an inhabitancy environmental him, involving graphic designers of all world to our project - Triennial exhibition of the eco poster « 4th BLOCK » .

We continue once the begun work, and we again invite colleagues - designers from all world to creative competition. We trust, that the works submitted on competition, again will tell "yes" to life in language of design and graphics, slightly having advanced a society to understanding of value of life in its any displays.

The exhibition as always will open precisely in time, April, 26, showing a highest level of skill, sincerity and unindifference of artists and designers of all world to problems of safety of lifes on the Earth.



▶▶ 그림 3. 4th Block  
그랑프리 작/Sebastien  
Courtois 프랑스



▶▶ 그림4.  
Dimtry Kavko 러시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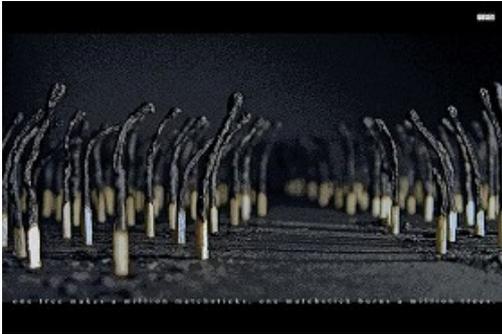
## 4.2 “Ekoplagat”

“Ekoplagat”은 The international exhibition and contest of issued posters on the problems of the environment and nature protection in Zilina / Slovakia의 약자이며 슬로바키아 환경부가 행사를 적극 지원하며 Povazska Gallery of Art in Zilina에서 전시를 하고 있다. 1978년 국제행사로 거듭난 이 행사는 2005년 10회째 행사를 이어오며 환경 보호만을 테마로 한 포스터 및 캠페인 국제공모전으로 거듭나고 있다. 아래는 “Ekoplagat”의 원문 요약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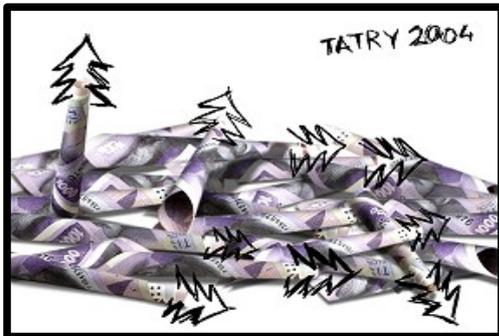
The international exhibition and contest of issued posters on the problems of the environment and nature protection in Žilina / Slovakia

There is a lot of ways how to protect nature, how to avoid its further abuse and how to contribute to saving the species. But if we do not change our attitude towards nature all these are able to bring only temporal solutions. It is man who is responsible for critical state of nature because he is using it in the harmful way. If we succeed in influencing his thinking and in teaching him how to approach nature without abusing it we have a great chance to save the values which are now slowly disappearing right in front of our eyes. Therefore the education towards nature and landscape conservation is one of the most essential activities of nature conservation. The first international exhibition EKOPLAGÁT takeks place in the Považska Art Gallery in Žilina/ Slovakia in 1978. It was the first regular international event of this kind in he World. In every three years Ekoplagát Žilina represents the latest trends of the poster progress on the problems of the environment and nature protection to the general public. Ekoplagát Žilina has the cultural, social and educational justification as the one of the important international activity, which tends to increasing the public interest about the conservation of the life diversity on the Earth. Ekoplagát’05 will be held as one of the official undertaking of the festival DESIGN DAYS \_05, the

Slovak and word-wide design festival.



▶▶ 그림 5. Haddad Wesam 이란



▶▶ 그림 6. Zuzana Sestakova 슬로바키아

## 5. 결론

심각한 환경오염원으로 등장한 포장폐기물의 환경 친화적 전환과 시각디자이너로서의 환경을 위한 역할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포괄적 생산자 책임주의에 입각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기업의 환경경영의 의지와 전략이 요구된다는 점인데, 이는, 디자인 단계부터 고려되는 제품의 전과정 평가, 리필 제품의 적극적 활용을 한다.

둘째, 소비자들의 환경의식과 구매기준의 전환이 필요하다. 즉 소비자들이 시각적으로 화려한 제품과 고급스런 이미지만을 선택할 경우 그 어떤 대안도 유명무실해지기 때문이다.

셋째, 포장재 산업과 포장재 수거체계에 대한 합리적인 정부의 투자와 정책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폐기물의 낮은 재활용률을 고려할 때, 경제적 인센티브의 적절한 활용을 통해 포장재 산업의 전문화를 유도하고 포장 폐기물 수거체계에 대해 종합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시급한 사항이다. 결국 포장폐기물의 환경 친화

적 전환은 국내외에서 앞 다투어 진행되고 있는 환경 규제에 대한 기업의 대응일 뿐 만 아니라 시장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첩경이다.



▶▶ 그림 7. EKOPLAG T 05 대상작 / Parisa Tashakori 이란



▶▶ 그림 8. Eduardo Barrera 멕시코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환경친화”그린(Green)등의 용어를 자주 사용하면서 환경보호가 이슈화 되고 있고 캠페인 활동이 벌어지고 있으나 그래픽 디자인에서 구체적인 활동을 찾아보기는 힘들었다. 이러한 예를 살펴보고 그래픽디자이너로서의 책임감과 환경을 보호할 의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국내 및 국제적인 활동이 더욱 활성화되길 바란다.



▶▶ 그림 9. Green Consumer 홍동식 작 - Ekoplagat 3등상 수상작



▶▶ 그림 10. Green Rest 홍동식 작 - Ekoplagat 3  
등상 수상작

### 참고 문헌

- [1] Ralph Metzner, Ph.D., Green Psychology-(Transforming Our Relationship to the Earth), Park Street Press, 1999
- [2] Nancy Jack Todd/John Todd, From Eco-Cities to Living Machines-(Principles of Ecological Design), North Atlantic Books, 1993
- [3] Hidur Jackson/Karen Svensson, Ecovillage Living - (Restoring the Earth and Her People), Gaia Trust/Green Books, 2002
- [4] Dan Phillips, Designs for a Health Home - (An Eco - Friendly approach), SOMA, 2002
- [5] David Del Porto/Carol Steinfeld, The Composting Toilet System Book, The Center for Ecological Pollution Prevention(CEPP), 2000

### 저자 소개

● 홍 동 식 (Hong, Dong-Sik)

정회원



- 1990년 2월 : 경북대학교 미술학과 (미술학사)
- 1997년 9월 : Academy of Art University (MFA)
- 2011년 8월 : 경북대학교 시각정보디자인학과 디자인학 박사
- 2009년 3월 ~ 현재 : 부경대학교 디자인학

부 교수

<관심분야> : 시각디자인, 타이포그래픽, 편집디자인